

경음악을 즐기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나운영

아마도 우리나라처럼 소위 순수음악과 경음악이 유달리 구별되어 있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다 같은 음악인데 순수음악은 중시하고 경음악은 지나치게 경시하는 까닭에 심지어 이에 종사하는 사람까지도 한편은 음악가의 대우를 받고 한편은 소위 탄따라라고까지 불리워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 음악을 감상하는 사람까지도 둘로 나누어 문화인과 야만인(?) 또는 교양인과 무식인(?)으로 취급하려 드는 희비극이 연출되는 것을 볼 때 과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것은 무엇보다 먼저 경음악에 대한 정의가 확실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까닭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경음악이라 하면 곡마단 악대나 일제시대의 유행가만을 연상하는 분이 많은가 하면 경음악은 재즈만을 말하는 것으로 좁게 생각하는 이도 있고, 더욱 음악인들 가운데는 근대, 현대음악을 모두 경음악으로 취급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분이 상상외로 많음을 볼 때 고소를 금할 수 없다.

경음악이란 그렇게도 범위가 좁은 것은 아니다. 무곡, 행진곡을 위시하여 오페레타, 팝송, 샹송, 재즈, 세미 클래식, 무드 뮤직 등 경쾌하고 명랑한 곡,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들어서 즐길 수 있는 음악이면 모두 경음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비단 탕고, 부기 우기, 맘보, 로큰롤 등등만이 경음악인 것이 아니라 요한 슈트라우스의 <무용곡>도, 스자의 <행진곡>도, 롬베르그의 <스튜던트 프린스>, 거슈인의 <파리의 아메리카인>, 스트라빈스키의 <병사의 이야기>도, 라벨의 <볼레로>도, 베토벤의 교향곡 <제8번>, 바흐의 <농민 칸타타>까지도 경음악으로 취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들이 일상생활에 있어서 즐기는 음악 중 그 대다수의 것이 경음악이니 이것은 절대로 무시할 수도 없고 또 무시한다고 해서 없어질 것도 아니겠고 그보다도 무시할 까닭조차 없는 일이다. 순수음악이 있음으로써 경음악의 존재가치가 생기는 것이며 또한 경음악이 있음으로써 순수음악의 존재가치가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양자를 차별하여 어느 것을 편애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양자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참말로 음악을 이해하는 분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며 그런 분에게는 성격상 어딘지 결함이 있을 것으로 나는 생각한다. — 이상은 서울신문에 게재되었던 나의 글 중의 일부이다.

(1957년 3월 17일부)

물론 내가 여기서 말하는 경음악이란 소위 국산 왜색 유행가나 왕년에 유행했던 악극단의 음악 등속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경음악 중에서 가장 절대적 위치를 견지하고 있는 재즈에 대해서 언급하려 한다.

미국의 재즈 연구회장 스탠즈 교수는 일찍이 말하기를 「재즈란 구라파의 멜로디, 화성, 악기와 아프리카의 리듬이 혼합되어 미국에서 육성된 음악이다.」라고 했다. 재즈가 1918년에 구라파로 건너가 파리에서 처음 공개된 이래 온 세계에 퍼지게 되어 드뷔시, 라벨, 오네거, 미요, 힌데미트, 거슈인, 코플랜드, 케이지 등도 재즈의 영향을 받은 작품을 많이 남기게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 아닌가? 실로 재즈는 20세기 음악에 무시할 수 없는 큰 영향을 이미 과거에 주었거니와 현재에도 주고 있고 또한 미래에도 줄 것을 의심치 않는다. 그러므로 현대인은 재즈를 무조건 배격할 것이 아니라 이 재즈 가운데의 독소와 영양소를 잘 분간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로프 리베르만의 <재즈밴드와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을 비롯하여 군더, 솔러나, 존 레위스 등에 의한 「제3의 흐름」(The Third Stream)의 동향을 보더라도—아니 종래에 재즈를 금지해 왔던 소련에서까지 요즈음은 재즈를 허용하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재즈를 포함한 경음악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할 게 아니겠는가? 20세기의 경음악이 무조음악, 12음 음악, 구체음악, 전자음악, 점묘주의 음악, 불확정성 음악 등에 있어서의 모든 전위적(?)인 기법을 도입하여 활용함으로써 날로 날로 발전되어 가고 있으니 도리어 이것을 진지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나는 주장한다. 다만 이것을 연구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이것 중의 무엇을 어떻게 섭취하여 한국적인 현대음악을 창조하느냐가 앞으로의 과제일 뿐이다.

경음악을 즐기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물론 본능을 억제할 줄도 알아야 할 것이나 속으로는 좋아하면서 겉으로만 싫어하는 체하는 이중생활을 할 필요가 무엇인가? 나는 경음악만을 좋아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순수음악이야말로 음악의 고향인 까닭에...

< 1964. 6. 음악세계 >